본래부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우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㊸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2026)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하루하루 힘들게 회사 생활을 버티던 팀장 '공은태'가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당첨금 13억원을 위안 삼아,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의 지혜를 얻는 이야기다.
사진 출처=TVING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즐거운 상상으로 시작해 보자. 평소에는 가늠할 수도 없는 큰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지금보다 좋은 집을 마련하는 모습, 무척이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원하는 만큼 현지인처럼 살아 보는 자신, 마음껏 쇼핑을 즐기는 등 상상에 혼자 즐거운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까?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난 공은태(배우 이준혁)는 조금 더 좋은 직장과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업계 매출 2위에 직원이 900명이나 되는 대형 유통회사에 입사한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노력의 시간을 6년 보내고 지금은 젊은 나이에 선배들을 제치고 팀장이 됐다.

은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여차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결과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안심이 됐고 그래야 삶을 잘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은태가 말하는 열심히 사는 삶이란 정해진 틀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태의 그런 성실함은 나이 어린 팀장을 무시하는 양 대리(배우 서현우)의 무례한 행동마저 묵묵히 참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삶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저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두 캔으로 자신을 다독일 뿐.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같이 맥주를 사러 가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대신 받은 로또복권이 그만 1등에 당첨돼 버렸다. 814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3억원을 받게 된 은태는 그 큰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집어던지는 모습, 회사에 불을 지르는 장면,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신을 그려본다.

밤을 꼬박 새운 은태는 매일 아침 들르는 회사 근처의 카페 사장에게 질문을 던진다.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심한 듯 답하는 카페 사장. "뭐, 카페 해야죠. 돈 없어서 카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마치 은태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런 말을 덧붙인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지금 정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상상인데? 어떻게 쓰면 즐거운지 알 때까지 굳이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은태는 통장에 13억원을 쌓아 두고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미 은태의 태도와 마음은 예전과 다르다. 출근한 은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근무 시간을 지키라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일찍 점심을 먹으러 간 양 대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혹시라도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참기만 했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양 대리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은태. 퇴사하겠다는 양 대리를 붙잡은 은태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회사를 한번 뒤집어 보는 사고를 치자면서 같이 일하자고 한다.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열심히만 살던 직장인 공은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그 당첨금을 위안 삼아 거칠 것 없는 삶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지난 6년간 은태는 자신이 힘들어도 성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마치 혼자 돌아가는 기계처럼 직장생활을 해왔다. 그의 안중에 팀은 없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양 대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은태는 혼자서 일하던 방식을 버리고 팀원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회사에 닥친 굵직굵직한 위기들을 같이 해결해 나간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은태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뭘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13억원이라는 당첨금이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다. 130억원이면 모르겠지만 13억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한 채나 번듯한 건물 하나 사기에도 모자란 돈이다. 작은 빌딩이라도 알아보려고 찾아간 부동산에서 연봉을 묻는 사장에게 은태는 7000만원이라고 답한다. 이때 부동산 사장의 흥미로운 계산법이 등장한다. 월세로 연 7000만원을 벌려면 건물이 30억원은 되어야 하니 은태가 몸값 30억원이 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요즘 사람들, 로또 많이 사죠? 그게 다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직장인 '공은태', 로또 1등 13억원 당첨
당첨 전 · 후 삶은 같지만 태도 달라져
깨달은 이도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아
내가 부처로 사는 것이 곧 불국정토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포스터.
사진 출처=TVING

은태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훨씬 비싼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로또 당첨 이후에 바뀐 은태의 태도는 13억이라는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덕분인 셈이다. 그러니 로또 당첨금 정도로는 은태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면모는 또 다른 1등 당첨자인 카페 사장을 통해서도 에둘러 드러난다. 은태가 당첨금을 찾으러 간 은행 복도에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행운과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조각상이 장식돼 있었다. 그런데 은태가 매일 찾는 카페에도 똑같은 조각상이 놓여있는 것. 은연중에 카페 사장 역시 1등 당첨자임을 암시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카페의 이름이 '일상'이라는 점이다. 카페 사장도 은태가 직장을 다니듯, 매일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대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는 은태의 질문에 '카페를 하겠다'는 사장의 답이 실제 삶이었던 것이다.

뒤늦게 카페 '일상'의 사장이 1등 당첨자임을 눈치챈 은태에게 사장이 묻는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어때요?" 이에 대한 은태의 대답이 일상을 강조하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은 게 바뀔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돈이 없었어도 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고는 첫 회 시작 장면의 모습과 대사 그대로 드라마는 끝을 맺는다. "나는 여전히 어제와 같았고 내일과도 같을 하루를 살아간다. 오늘도 그렇게 무심하게도 시간은 흘러간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처음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자.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다. 보통 수행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이다. 그런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삶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매일 참선에 매진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더 이상 참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염불 정진을 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더 이상 염불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는 선정과 설법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전은 전한다. 그 와중에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탁발을 다니시고 함께 공양하셨다. 깨달은 이의 삶이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의 삶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큰스님들 역시 평생 조석예불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예불대참회문을 일상의 실천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눈에는 수행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깨달은 이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 유명한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말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은태가 자신의 30억 가치를 발견하듯이, 나는 본래부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 즉 내가 부처인 줄 깨닫기만 하면 새삼스럽게 깨달을 것 없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한 이의 삶이 바로 보현행원이다. 그래서 보현행원은 불도를 이루겠다는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가 펼쳐내는 불행(佛行) 차원의 행위로 설명한다. 한 마디로 "부처님으로 살라"는 가르침이고, 내가 부처님으로 살면서 세상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아야 온 세상이 부처님 가득한 불국토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으면 그대로 쓸 뿐! 관건은 오직 하나다. 내가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다만 진정으로 내가 부처임을 믿기 위해서는 기도와 정진과 공덕이 필요하다. 구법을 떠나는 선재(善財)의 이름에 재물이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런 공덕을 상징한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처로 살겠다는 생각은 로또 1등을 기대하면서도 로또를 사지 않는 일과 같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